

《과학을 사랑하는 기술》 파스칼 누벨 지음
| 전주호 옮김 | 264쪽 | 값 11,000원

울력

발견의 심리학 또는 과학의 궤적 찾기 강동호 편집장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막연히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물리학이 아닌 기상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답답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배점 많은 국영수만 줄기차게 하다보니 과학 과목은 뒷전이었고, 또 고상한 문제(?)들만 풀고 외우다보니 새로 개념을 정리하고 적용하는 게 만만찮았다.

전공과목으로 열역학을 배울 때였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냉장고를 가지고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해 보라”고 하셨다. 지금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황당한 느낌이 들던 문제였다. 열역학 법칙이야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사실 엔트로피 개념을 모르거리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왜 그렇게 엔트로피 개념이 이해되지 않던지... 그 때문에 리프킨의 《엔트로피》와 다른 몇 가지 책들을 열심히 찾아 읽으면서 조금씩 그 개념을 이해했다. 그 경험이 나에게 좀 색다르게 다가왔다. 과학이란 것이 과학적 지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 결국 과학에 대한 나의 무능을 깨닫고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은 다른 몇 가지 경험과 함께 나에게 헛공부만 한 건 아니라는 위안을 주곤 한다.

출판일을 십여 년 넘게 하면서도 과학 책을 제대로 내보지 못했다. 과학에 대한 내 안목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과학 책을 낸다면 나는 좀 다르게 접근해 봐야지 하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게 우연히 《과학을 사랑하는 기술》이 다가왔다. 공부를 포기했다지만, 마음 한편에는 과학에 대한 짝사랑이 남아 있던 터라 제목부터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게다가 저자도 생물학을 전공해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방향을 바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가.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과학자들은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과학을 한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과학이지만, 과학자들은 과학의 정체성이란 것에 대해, 자신이 연구한 것에 한해서 말을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과학의 분과 학문처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과학에 대한 학’이 이런 과학의 정체성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사회학, 과학과 윤리 등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과학 심리학은? 《과학을 사랑하는 기술》은 바로 그런 과학 심리학에 대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왓슨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정신분석을 받는다. 카우치에 편안히 기대앉아 어떻게 DNA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를 자유롭게 진술한다(왓슨의 책 《이중나선》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신분석가는 이를 바탕으로 이 위대한 과학자의 발견 과정과 그 심리적 측면을 나름대로 분석해 과학의 심리학이란 걸 정립하려고 한다. 그리고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과학이라는 것을 하는지로 분석의 지평을 넓힌다. 그러면서 과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오류를 지적하고 극복하려고 한다. 이 책을 비유하자면 그렇다.

책의 서문을 쓴 노벨상 수상자 프랑수아 자콥의 말처럼, “《과학을 사랑하는 기술》은 놀랍고도 유쾌한 책이다. 또한 마음 속에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과학자들이 거둔 위대한 성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줄 것이다.”

과학은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다. 이런 위대한 인간의 활동에서 인간이 배제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이를 일깨워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

- 《500원으로 밀반찬 만들기》(초밥왕 삼형제 글)
- 《1,000원으로 국, 찌개 만들기》(헤라 글)
-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나물이 글)
- 《2,000원으로 아침상 차리기》(마이드림 글 · 요리)
- 《3,000으로 원조 맛집 표절하기》(러브미&러브유 글 · 요리)
- 《5,000원으로 손님상 차리기》(다소마미 글)
- 각권 220쪽 내외 | 각권 값 8,800원



그리고 책

어디에나 기획아이템은 있다! 김선숙_그리고책 공동대표

한 컴퓨터 월간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는 기자 시절 내 편집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좋은 기획 아이템을 찾으려면 모름지기 텔레비전도 보고 잡지도 좀 많이 읽고 그래야 해. 시집에도, 소설책에서도 기획거리를 찾아봐.” 컴퓨터 전문지 기자에게 텔레비전을 보고 기획아이템을 찾으라니…

1996년은 지금처럼 컴퓨터나 인터넷이 보편적이던 때가 아니어서 TV에서 컴퓨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려울 때인지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참 ‘쌍뿔맞은’ 주문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말인즉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심지어 똥 누며 잡지를 뒤적일 때조차도 늘 기획거리를 생각하라는 뜻이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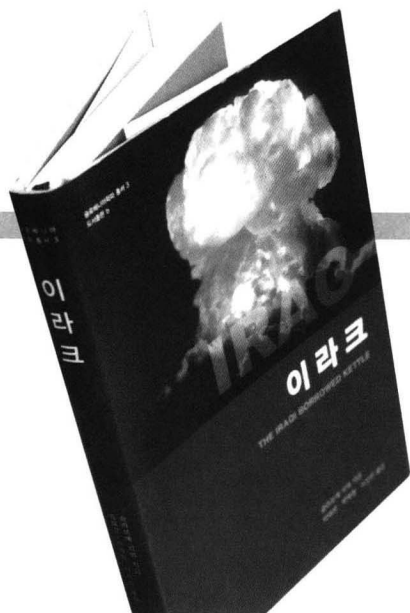
그때 몸에 밴 습관 탓일까? 시리즈 모두 합해 70만 부 가량이 팔려나간 ‘~원으로 밥상 차리기’ 시리즈도 잡지를 읽다 떠오른 기획이었다. 영화 잡지에 어느 유부남이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100엔으로 아이들 밥상을 차려주는 구구절절한 내용의 만화가 소개된 것을 보고 툭 튀어나온 제목이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였다.

자취생활을 하며 요리책을 몇 권 사다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집 냉장고에는 없는 비싼 재료와 듣도 보도 못한 요리 기구들이 등장하는 통에 한번 만들어볼 엄두도 안 났던 요리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책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즈음 동료들과 차린 출판 기획사 ‘그리고책’에서는 연일 치열한 기획회의가 이어졌다. 자취생 냉장고에도 있을 법한 흔하고 값싼 재료, 대한민국 가정 어디에나 있는 냄비, 프라이팬만 가지고 조리하고, 우리 엄마들이 하듯 밥숟가락 하나로 모든 계량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요리책. 화려한 장식에 치중하느라

음식 만드는 법은 뒷전인 요리책이 아닌 엄마가 음식 만들면서 중요한 과정마다 어드바이스와 팁을 알려주는 듯 과정 컷이 생생한 요리책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직접 출판하고 싶은 욕심도 났지만, 당장 차린 회사에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다. ‘영진닷컴’에 기획서를 내고 출간계약을 맺은 뒤 저자 섭외부터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그 즈음 계약한 《5,000원으로 손님상 차리기》《1,000원으로 국, 찌개 만들기》《500원으로 밀반찬 만들기》는 영진닷컴을 통해 나왔고, 이후 시리즈는 영진닷컴과의 정식 협상 후 그리고 책이 자체 출판하고 있다. 올해 초 《2,000원으로 아침상 차리기》가 나왔고 얼마 전 《3,000원으로 원조 맛집 표절하기》와 《2,000원으로 아이들 밥상 차리기》를 선보였다. 앞으로도 ‘보약 밥상 차리기’, ‘이유식 만들기’, ‘도시락 싸기’ 등이 곧 나와 독자들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Y**



《이라크》슬라보예 지젝 지음 | 박대진 외 옮김 | 238쪽 | 값 15,000원

도서출판b

진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성민 기획실장

2003년 겨울, 그때는 이라크 파병 문제가 국내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던 때였다. 그동안 도서출판b에서는 슬로베니아 철학자인 슬라보예 지젝과 그의 동료들의 책을 몇 권 번역 출간했거나 출간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지젝이 이라크 전쟁에 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영어본은 2004년 6월 출간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파병은 4월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번역 출간하기 위해서는 영어본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조기 조 대표도 그 책이 좀 욕심이 나는 것 같아 보였다. 출판사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그 책이라면 정치적 쟁점과 맞물릴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기왕에 그 슬로베니아 학자들과 메일 교환을 하고 있던 나는 직접 저자와 접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6월에 영어본이 출간된다고는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완성되었을 수도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래서 저자에게 자초지종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좀 놀랍게도 이메일을 보낸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지젝에게서 답신이 왔다. 그것도 원고가 첨부된 메일이 말이다. 지젝은 메일 교환을 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두세 마디로 적는 편이고, 성격도 화끈한 것 같았다. 그가 보내온 답신 내용은 이러했다.

Dear friend, thanks
You can buy the Iraq book directly from me. I
attach the ms.
Slavoj
번역을 하면 이렇다.

지젝: 친구 고맙다.
이라크 책을 내가 직접 보내주겠다.
원고도 메일을 첨부한다. 슬라보예

추후에 나는 그에게 계약에 관한 조건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다시 한 번 '화끈하게' 답해 주었다. 그의 동료 보조비치는 내게 지젝이 다른 책과 관련해서 러시아 쪽과도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해주었다. 여하간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번역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 라는 것은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 의기투합을 한 세 명의 역자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각자가 한 챕터씩을 분담함으로써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초역을 끝내자는 데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책은 2003년 4월에 출간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몇몇 주요 일간지에서도 이 책을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책으로 선정해서 크게 다루어주었고, 이런저런 글들에서도 이 책이 인용되었다. 책에 대한 평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책은 예상보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책 제목을 잘못 붙인 것이 아닐까 하는, 해도 소용이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치적 쟁점이라는 것의 위선적 성격에 관한 자조 섞인 말들도 있었다. 사실 파병이 일단 '감행' 되고 나자 이슈는 급속하게 시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진짜로는 아직도 죽지 않은 그 이슈가 말이다.

여하간 나는 여전히 지젝의 진정한 호의와 동지애에 대한 감사를 잊지는 않고 있다. 얼마 전 그는 세 번째 결혼을 한 것 같다. 나는 결혼 선물로 그의 <까다로운 주제>가 드디어 도서출판b에서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



교양인

‘문명의 힘’ 인 법을 ‘야만의 힘’으로 만드는 사형제도 이승희 편집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솔직히 나와 내 주변 사람이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사형제 폐지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사형제도가 없다면 유명철 같은 극악한 범죄자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사형제를 폐지하면 더 많은 잠재적 살인마들이 나타나진 않을까? 《극단의 형벌 Ultimate Punishment》의 저자 스콧 터로 Scott Turow도 이와 똑같은 갈등을 겪었다.

연방검사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스콧 터로는 2001년 일리노이 주지사로부터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연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 《극단의 형벌》은 그가 ‘일리노이 사형위원회’에 소속되어 2년 동안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연구한 경험의 산물이다. 저자는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풀려난 사람들, 악랄한 살인마들,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두루 만나보고 수많은 재판결과를 조사한 뒤, 사형제의 불완전함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결국 그는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배심원 제도를 비롯해 여러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와 다른 미국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형제 문제에서 부각되는 핵심 쟁점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과연 사형이 범죄 억제책으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무고한 죽음도 감수할 만큼 사형이 정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지면이 권위적이다 하더라도, 법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어떤 법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법제도의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할 세계에 살고 같은 것은 그것의 부끄러운

사형함으로써 살인을 자위로 세우고 내우 문명의 힘이 아니라 야만의 힘으로 법의 힘을 잃어 버리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 이번에 《극단의 형벌》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얼마 전에 본 한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강력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제2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가해자가 잡혀 사건이 종결되어도 유족의 고통은 줄지 않았다. 과연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르짖는 정의, 사형 제도를 통해 지켜질 수 있다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사형을 피해자 유족을 위한 일종의 보상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방편으로 보는 인식은 미국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콧 터로는 책에서 이렇게 묻는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족을 정당한 것은 것은 범법일까? 어 찍민 학교, 교회, 도시, 이웃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를 말라하 는 훨씬 폭넓은 어떤 것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법이 유 족에게 되살음을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

그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유가족들 뒤에 숨어서 우리 자신의 폭력적인 보복 충동과 두려움을 좀더 편안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섬세한 눈으로 사형제도의 문제, 나아가 사법제도와 정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리라 생각한다. **이승희**